

# 『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 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 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 
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  
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개정에 따라  
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자·출연 및 연례적·반복적 출자·출연 시  
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일정기간  
정하여 출연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이에 본 조례 개정으로 연례적 출연 동의에 따른 입법 및

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조례해석의 명확성을 기해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 
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  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애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  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 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